창작 국악관현악의 감동을 만나다

9일 오후 3시 정읍사예술회관서 서울시국악관현악단 특별공연 열려

서울시국악관현악단(단장 박호성)의 특별공연이 오는 9일 오후 3시에 정읍사예술회관에서 펼쳐진다.

대한민국 최초의 국악관현악단인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은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미주·유럽 등지의 수많은 해외 공연을 통해 널리 사랑받고 있는 악단이다.

특히, 공연마다 독특한 창작관현악곡의 아름다운 선율로 한국의 혼을 잘 담아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놀이와 축제의 희열을 우리 악기들의 쾌활함으로 표현한 국악관현악곡 '춤, 바람, 난장'과 마을 축제의 분위기를 관현악의 시각에서 새롭게 표현한 국악관현악곡 '축제'를 선보인다.

또, 거문고 협주곡 '한갑득류 거문고산조'와 아쟁 협주곡 '여명', 소리꾼과 관현악의 만남 '박타령'과 '장타령', 관현악의 웅장함과 경기민요의 화려함이 어우러진 경기민요 '연곡' 등이 펼쳐진다.

국악관현악단의 아름다운 선율과 웅장함, 국악의 흥이 어우러진 이번 공연은 국악인들과 시민에게 오래 기억될 아름다운 우리 음악의 추억을 선물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공연은 정읍시와 서울시의 상생협력과 문화교류 사업 일환으로 추진됐다.

정읍시립국악단은 오는 23일 오후 3시에 북서울 꿈의 숲 콘서트홀에서 정읍의 풍류를 알리는 공연을 하게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전라지역 한국예술문화명인 고창 초대전 개최

귀금속, 도자기 등 전라지역 예술문화 명인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5일 고창군에 따르면 오는 11일까지 고창문화의전당 전시실에서 전라지역 한국예술문화명인 고창 초대전이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한국예술문화명인 전라지역 협의회원과 고창출신 명인 등 30여명의 명인들이 참여했다. 귀금속, 도자기, 전통자수, 가구공예, 나전칠기, 전통서각 등 다양한 작품들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흔치않은 기회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전라지역의 명인들과 고창출신의 명인들이 투철한 장인정신과 예술의 혼으로 빚은 우수한 작품들을 전시 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 소중한 전통문화의 가치를 잘 보존하고 계승해 군민들의 삶이 문화예술의 향기로 가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시, 광한루원에 낙엽의 거리 조성… 관광객들의 발길 사로잡아

남원시가 가을 나들이 명소인 광한루원에서 가을 단풍을 만끽할 수 있도록 낙엽의 거리를 조성했다.

남원시가 남원의 가을 나들이 명소인 광한루원에서 가을 단풍을 만끽할 수 있도록 낙엽의 거리를 조성해 관광객과 시민들을 유인하고 있다.

남원 광한루원은 아름다운 주변 경광에 매료된 선현들이 신선이 사는 이상향을 지상에 건설한 대표적인 관아 정원으로, 울긋불긋 물든 가을단풍이 기와누각과 초가집에 잘 어우러지며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특히, 광한루원은 전국에서 많은 학교가 수학여행과 졸업앨범사진을 위해 방문하는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으며, 자연그대로 놓아둔 낙엽의 거리는 청소년의 감성 폭발을 자극해, 인생 샷 명소로 부각되고 있는 그야말로 추억의 가을 나들이 장소로 으뜸이 되고 있다.

올해 새 벗집으로 단장한 월매집의 초가집에도 붉게 익은 감이 주렁주렁 달려 가을의 아름다운 풍취를 진하게 자아내고 있으며, 춘향관에는 광한루원에서 촬영된 영화 및 드라마 포스터 30점과 선현들의 광한예찬 한시를 번역 전시해 광한루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광한루원은 광한루, 오작교, 완월정, 춘향관, 춘향사당, 월매집, 삼신산과 연지 등이 잘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광을 보유, 대한민국 100경에 들어 있고 명승 제33호로 지정된 단풍이 가득한 가을여행지로 잘 알려져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요촌동 풍물단, 김제평생학습한마당서 최우수상 쾌거

김제시 요촌동(동장 송해숙)을 대표하여 제10회 김제평생학습한마당에 참여한 요촌동 풍물단은 지난 1일 김제시민운동장 잔디광장에서 진행된 발표마당 행사에서 대회 최고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날로 10회 째를 맞이한 김제시 평생학습한마당은 체험을 위주로 한 배움마당과 공연발표를 중심으로 한 발표마당, 어울림마당 등의 부대행사로 구성돼 진행되었다.

요촌동 주민 10여명으로 구성된 요촌동 풍물단은 국악과 댄스음악으로 구성된 가락에 장구를 기본으로 한 퓨전 풍물을 선보여 관객들과 심사위원단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수상한 풍물단 대표 강영심 단장은 "다른 참가팀들의 솜씨가 뛰어나 우리 풍물단이 대회 최우수상을 받게 될 줄 몰랐다"며, "앞으로 더 의욕을 갖고 연습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볼거리와 즐거움을 전달하는 풍물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해숙 요촌동장은 "풍물단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은 것 같아 기쁘다"면서, "우리 요촌동 풍물단이 우리 동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콘텐츠 제작, 어렵지 않아요"

원광대, 14일 소태산영화제 개최… 영상 콘테스트도 진행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교내 캠퍼스 일원에서 '2019 소태산 영화제'를 개최한다.

올해 3회를 맞이한 소태산 영화제는 지역사회 시민 참여형 문화예술 복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와 익산시, 원불교 문화사회부, 원광대가 공동 주최하고, 소태산영화제 사무국 및 원광대 LINC+사업단이 주관하며, 익산교육지원청과 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미, 희망연대 등이 후원한다.

크게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나눠 진행되는 소태산 영화제는 개막식에 이어 LINC+와 함께하는 영상 콘텐츠 콘테스트, 영화시사회, 상영작 감독 및 출연진이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 시간 등이 펼쳐진다.

특히 LINC+와 함께하는 영상 콘텐츠 콘테스트는 11월 9일까지 청소년과 대학생, 일반시민 부문으로 나눠 참가 작품을 모집하고 있으며, 작품은 5분 이내의 MP4 형식 영상 파일을 신청서와 함께 이메일(ledsa@wku.ac.kr)로 접수하고, 자세한 사항은 063-850-5703, 5387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콘텐츠 제작은 '생명과 소통'을 공통주제로 청소년 부문은 '가족과 우정', 대학생 부문은 '취업과 YOLO', 일반시민 부문은 '사랑과 희망' 등 소주제로 나뉘어 있으며, 11월 14일 영화제 개막식에서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총 65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는 대상, 부문별 금·은·동상과 특별상 등이 평가위원회를 거쳐 선정된다.

소태산 영화제 집행위원장인 박맹수 총장은 "지역 영상산업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 맞춤형 영상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민관학산 협력을 통한 윤리 콘텐츠 확산으로 지역 브랜드가치 개발 확대를 위해 영화제를 추진하게 됐다"며, "전북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한편, 소태산영화제 사무국은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원광대 프라임관에서 개최되는 영화시사회와 GV(관객과의 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생명과 끝없이 지속되는 삶들 사이의 소통을 확인하고, 지역 문화예술 분야로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과 전문가 간의 멘토링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